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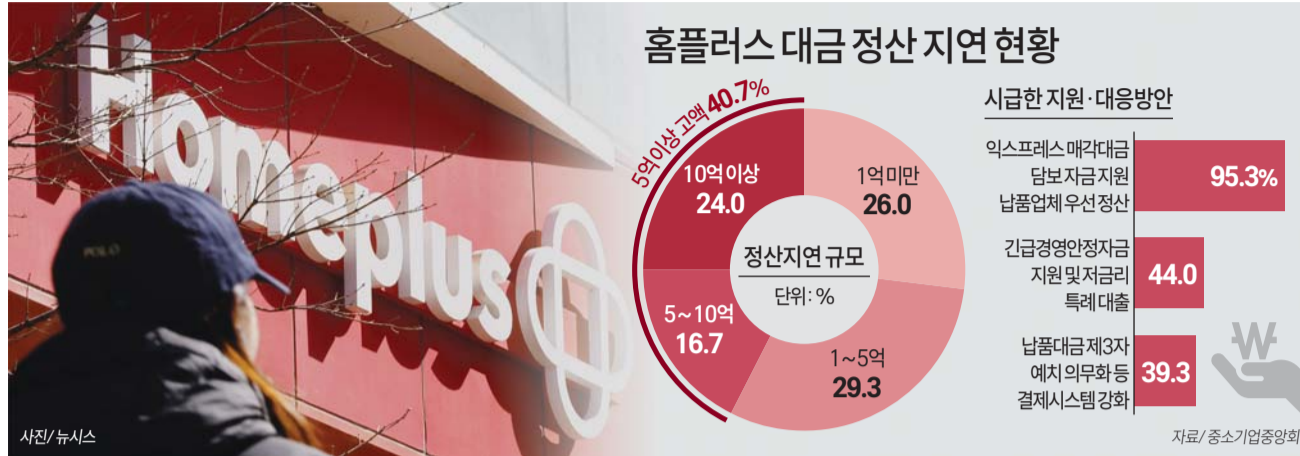
소상공인 2면

# 홈플러스 납품사 60여곳 미수금 5억 이상... 평균 8억 못받아

중기중앙회, 150곳 정산 조사  
98% “납품 60일 지나도 못받아”  
10곳 중 8곳 경영난, 자재비·임금난  
79.3% “긴급자금·우선정산 필요”  
“정상화 위해 납품사 생존 우선”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받지 못한 돈이 평균 8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받은 돈이 5억원 이상인 곳도 60곳이 넘었다. 10곳 중 8곳은 납품대금 미수령으로 어려움이 큰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홈플러스 납품 중소기업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와의 거래에서 현재까지 정산이 지연된 납품 대금은 4



단값(가장 높은 금액과 가장 낮은 금액)을 제외하고 평균 7억7400원으로 조사됐다. 받지 못한 돈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29.3%로 가장 많은 가운데 ▲1억원 미만(26%) ▲10억원 이상(24.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6.7%) 순이었다. 이 중 40.7%는 5억원

이상이었다. 미정산 금액도 상당하지만 법정 지급기한도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응답업체의 98%가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홈플러스 납품업체의 76.7%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꼽힌 어려움 1순위는 '원부자재 구입대금 및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62.7%)'이었다.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필수 운영자금 부족(19.3%)'이나 '인건비 지급 지연 및 인력 이탈 위기(14.0%)'를 겪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이 낮을수록 인건비 지급 지연이나 인력 이탈 위기를 겪는 업체가 비중이 높았다.

필요한 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대주단(메리츠금융그룹 등)의 자금(대출) 지원 및 납품업체 우선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79.3%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측은 전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게 회생에 필요한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DIP) 집행을 요청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 중소기업들의 생존이 담보돼야 홈플러스의 정상화도 가능하다. 이번 홈플러스 경영 위기에 일말의 책임도 없는 이들 기업의 생존이 최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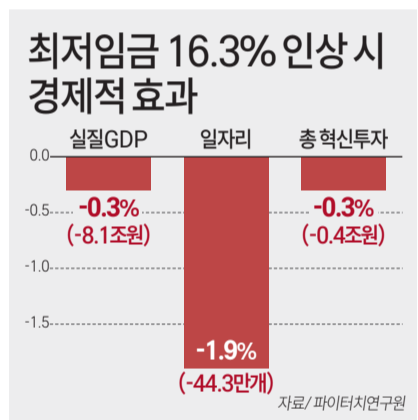
metro

## “내년 최저임금 16.3% 오르면, 일자리 44만3000개 감소”

파이터치리,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실질GDP 8.1조·혁신투자 4000억↓  
“과도한 인상 요구, 경제에 악영향”  
자영업자 44% “최저임금 동결”  
4명 중 1명 “이미 폐업 한계 상황”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의 요구대로 16.3% 올릴 경우 소상공인 등 일자리 44만3000개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일 반균형모형을 적용해 최저임금과 기업의 혁신투자를 분석한 것으로, 이는 국제학술지 '아시아-태평양경제문헌'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승인받았다. 23일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6.3% 인상하면 실질국내총

생산(실질GDP)은 0.3%(약 8조1000억원), 일자리는 1.9%(약 44만3000개), 총 혁신투자는 0.3%(약 4000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기업의 노동수요량, 즉 일자리와 생산량이 줄어든다”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신상품 개발 등 혁신투자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면 제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기업 제품을 납품받는 일반기업의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을 5% 올리면 연간 실질GDP(약 2조6000

억원), 일자리(약 15만1000개), 총혁신 투자(약 1000억원) 모두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라면 연간 실질GDP, 일자리, 총혁신투자가 각각 5조1000억원, 28만8000개, 2000억원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라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5%로 이미 높은 수준”이라면서 “과도한 인상요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걱정 인상을 묻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4.6%가 '동결'을 답했다. ▲1~3% 미만(20.6%) ▲인하(13%) ▲3~6% 미만(12.6%) 순이었다. 또 폐업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명 중 1명(25.2%)이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14.6% ▲3~6% 미만 인상할 경우 12%가 각각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metro

## 매년 12월 첫째 주 ‘벤처기업 주간’ 지정

중기부,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개인조합 상장사 투자한도 2배

매년 12월 첫째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업계 성과를 재조명한다.

벤처시장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 제도도 개편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상한을 2배 확대하고 벤처투자회사가 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기준도 재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

창업기획자가 운영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유무 대상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 이 없는 업력 5년차 창업기업까지 넓힌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은 10%에서 20%로 확대한다.

투자자금 회수 여건도 개선한다. 대기 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에 동일 대기업집

단으로 포함될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던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는 '업종'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으로 전환한다. 현장 혼선 방지와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유무 규정을 없애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봤다.

모태펀드 운용 규정과 벤처투자 관리 체계도 손본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늘어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자 내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한다. 또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를 이관해 전문성을 키운다.

/김승호 기자

## 삼양이노켄, 바이오 소재 LNG 단열재 개발

HD현대중공업 등 3사 공동개발  
열효율·내구성 높여 선박시장 공략

삼양이노켄이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용 단열재 개발에 나선다. 석유화학 기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이소소르비드를 적용해 단열재의 열효율과 내구성, 난연성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 소재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이노켄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 미래고분자연구와 'LNG 저장탱크용 단열재 공동 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양이노켄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이소소르비드 공급과 관련 물질 데이터를 제공한다. HD현대중공업은 이소소르비드를 활용한 차세대 LNG 저장탱크용 단열재 시제품 개발과 물질 평가, 최종 제품 양산화를 맡는다. 미래고분자연구는 단열재 배합비와 공정 최적화 솔루션 설계를 지원한다.

LNG 저장탱크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180도 이상 발생해 열전도율이 낮고 내구성이 높은 단열재가 필요하다. 최근

조선업계에서는 원유 공급망 리스크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기존 석유화학 기반 단열재를 대체할 특수 소재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소소르비드는 옥수수 등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전분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만든 바이오 소재다. 기존 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원료로 단열재에 적용하면 열효율과 내구성, 난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양이노켄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도로, 전기차용 모터코어 접착제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원료 생산부터 기술 최적화, 최종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삼양이노켄의 이소소르비드 생산 역량, HD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저장탱크 기술, 미래고분자연구의 폴리우레탄 소재 설계 역량을 결합해 친환경 단열재 시장 선점을 노린다.

류훈 삼양이노켄 사업PU장은 “이번 협약의 목표는 친환경 바이오 소재를 활용해 단열재의 강도와 단열 효율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소진공

### ‘만땅맥주’ 동네슈퍼 공급

개당 1700원, 전국 3만곳 유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개당 1700원 짜리 '만땅맥주'를 전국 동네슈퍼 3만 곳에 공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는다.

소진공은 스쿼즈맥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수연),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KVC)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동네슈퍼 고객 유입을 확대해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소진공은 가격표시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와 유통 관리 등을 지원한다. 맥주 제조사인 스쿼즈는 '만땅맥주'를 6개월간 한정 생산·공급한다. 이와 함께 한수연과 마트협회, KVC는 전국 슈퍼마켓 유통체인망을 활용해 신속한 유통과 공급을 담당한다.

만땅맥주는 우수한 양조기술과 생산역량을 갖춘 스쿼즈가 제조한 100% 라거 맥주로 뛰어난 품질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협동조합·공동협력과 소상공인·인주 상품 연계를 통해 생생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 상품이다.

/김승호 기자